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 기대…목포대·순천대 통합이 관건

복지부, 6일 보정심 2차 회의 2027 의대증원 심의…설 전 윤곽 전망
순천대 구성원 설득 설명회 준비…두 대학, 6일·13일 통합 심사 회의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전남 땅 의대정원 확보에 관심이 쏟린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심의가 오는 2월 중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인력에 대한 증장기 수급체계를 심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의사 부족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 의대 정원 확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논의한다.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추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게 되는데, 늦어도 2월 설 연휴 전까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의사 인력 부족 의견을 내면서 의사 증원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추계위 결과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하지만,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국정과제인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부족 규

모를 1만5000명으로 추산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500명 증원을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5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 나온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 국립의대 2027년 개교와 의대 정원 100명 확보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동이 걸린 목포대, 순천대 통합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힘이 실리지만, 두 대학 통합이 없다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공산이 크다.

두 대학 통합은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순천대는 구성원 설득을 위한 설명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이 종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 재투표를 치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재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6일과 13일 각각 진행되는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 10·11차 회의에 참석해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계위가 의대 부족을 전망했고,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며 "두 대학이 보정심 마무리 전까지 통합에 이르러 2027년도 전남 국립의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가 국가유산청에 나주와 영암 등지에 분포한 '마한 옹관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한 옹관고분군 중 한 곳인 나주 복암리 고분군 전경.

전남도,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옹관 생산지' 나주 오량동 요지·영암 시종고분군 등 4개소

전남도가 나주와 영암 등지에 분포한 '마한 옹관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마한 옹관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는 정식등재를 위한 선형 절차다. 신청서 제출 후 국가유산청 심사를 거치게 되며 잠정목록 등재 이후에는 등재신청서를 작성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옹관은 큰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 시신을 넣어 땅에 묻는 장례용 관이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주로 어린이나 성인 무덤에 사용했으나,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회에서는 지배층의 묘제로 발전

시켰다.

마한옹관 문화는 생산·유통·매장을 하나로 연결한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창적 장례 문화라는 점을 설명이다.

3~4세기 영산강 유역에서는 길이 2m, 무게 300kg에 달하는 거대 옹관을 제작하고 영산강 물길을 따라 운반해 지배층 무덤에 매장하는 체계를 완성했다.

마한 옹관고분군은 나주 오량동 요지, 반남고분군, 복암리고분군과 영암 시종고분군 등 4개소로 구성된다. 오량동 요지는 77기의 가마를 갖춘 옹관 생산지며, 반남·복암리·시종고분군은 옹관이 실제 매장에 사용된 지배층의 무덤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에

착수해 자문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유산명, 타월한 보편적 가치(OUV), 구성유산 범위 등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국가유산청 심사를 거쳐 하반기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마한 옹관고분군은 문헌 기록이 부족한 마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라며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등재까지 나주시, 영암군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2000명 혜택

6일부터 1차 선착순…최대 20만원

광주시가 임신부들의 가사 노동 부담을 덜고 맘편한 출산 준비를 돋기 위해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1차 대상자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2000여명이며, 상반기 1차 모집 이후 4월부터 나머지 1500명에 대한 2차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다.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임신부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신 단진 시점부터 출산 예정일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대상자가 먼저 서비스를 이용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

받는 구조다. 2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항목은 임신부가 거주하는 공간청소, 설거지, 정리정돈, 정리수납 등으로 한정된다. 유모차나 카시트 세척 등 거주 공간 관리가 아닌 서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외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임신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정보 표시제 확대

건조저장·양념육류·알가공품류 등 제조·가공·소분·수입 업체 추가

이달부터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제도가 확대된다. 국민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한 조치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에게 영양정보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과, 낙농,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종이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우유와 햄·소시지류 등 일

부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를 생산하는 업체도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식육축수 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와 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현장 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다면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행으로 기준 표장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표장지 연장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전남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후 2028년까지는 식육 가공,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비 선택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 1. 5.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026. 3. 5 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된다.

2026년 1월 5일

주식회사 에이스케미칼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1길 54-6,
2층(학동)

사내이사 양정용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지에이건설(이하 'ジー'라 한다)과 주식회사 그린밸컨설이하 '올'이라 한다)은 2025년 12월 23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 회사는 합병하고, 'ジー'는 '올'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올'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할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주권의 제출이 없으면 합병에 이의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1월 5일

"ジー" 주식회사 지에이건설 201311-0032093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1 (성전동)

대표이사 김명종
"올" 주식회사 그린밸컨설 200111-0497656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8번길 16, 3층 (농성동)

대표이사 황지훈

분실 공고

·증권명: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출자증권
·증권번호: 제1700호
·주소: 전남 나주시 문평면 명화길 80-38
최후보자인: (주)송촌이엔디
상기 출자증권은 분실 공고함.
2026년 1월 5일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